

## 《聶齋雜詞》 所載 歌辭攷

李 東 燦\*

### 차 례

- |                      |                     |
|----------------------|---------------------|
| 1. 들머리               | 4. 《聶齋雜詞》 所載 歌辭의 性格 |
| 2. 《聶齋雜詞》의 著述動機      | 5. 마무리              |
| 3. 《聶齋雜詞》의 體裁와 所載 作品 |                     |

### 1. 들머리

《聶齋雜詞》는 聶齋 張信綱(1779~1856)이 저술한 筆寫本으로 저자의 6세손 張坡成님이 金泉郷土史編纂委員 李根龜님에게 향토사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이를 權泰乙 교수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에 살다간 무명 선비의 가사로서 일견하여 급변기의 사회상을 여실히 알려준 辭意 하나만으로도 학계에 소개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농재잡사》의 저자와 그 체제, 수록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가사 <還樵詞>를 註解하여 그 내용의 개략을 학계에 처음 소개하였다.<sup>1)</sup> 기왕의 연구에서는 저자의 가계를 밝힐 문헌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世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조교

1) 權泰乙, <聶齋歌辭 小考-「聶齋雜詞」 紹介를 중심으로> 《嶺南語文學》 22, 嶺南語文學會, 1992, 73~94쪽. 이는 《김천문학》 12, 韓國文人協會金泉支部, 1993, 188~207쪽에 재게제되었다. 이 글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하여 《聶齋雜詞》의 소재를 확인한 필자는 金泉郷土史編纂委員 李根龜님의 배려로 이 자료를 구해볼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근구님께 감사드린다.

譜와 文記, 그리고 농재의 일생담이라고 할 수 있는 <自歎辭> 등을 종합하여 저자를 소개하고 있어 이 글을 엮어 나가는데 여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사 <환막사> 한 편만을 기승전결로 나누어 주해하고 여기에 나타난 대사회적 비판정신과 그 의의를 고찰하였을 뿐 《농재잡사》에 수록된 15편의 가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그 성격 및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는 미루어 두었다.

《藝齋雜詞》의 歌辭文學史的 의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크게는 우리 가사문학사 전체 흐름에서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15편의 가사가 차지하는 의미와 관련하여 《농재잡사》를 평가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15편의 가사에 대한 개별 작품론은 물론 그 체제, 소재, 내용, 표현 등도 다른 가사집들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한꺼번에 수행하기는 어렵고, 또한 이 글의 제한된 지면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작업들은 후속 논문으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기왕의 연구에서 얻어진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이 책의 저술동기와 여기에 수록된 15편의 가사를 19세기 향촌사회에서의 가사문학의 창작 및 소통과 관련하여 그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18세기 후반 이후 향촌사회의 몰락 사족들에 의해 가문을 공간과 경로로 하여 상당수의 가사작품이 창작·소통된 성과와 일정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 것<sup>1)</sup>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18세기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는 향촌사회의 공동체의식을 해체시키고 있었으며, 이러한 위기적 현실 상황에 대응하여 사족들은 가족·가문 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주창하고 동시에 향민들을 교화시켜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대응의 과정에서 일련의 가사문학이 창출되고 소통·향유된 가사문학사의 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농재잡사》의 의의를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 2. 《藝齋雜詞》의 著述動機

字가 允五요 號가 堯齋인 張信綱은 仁同張氏 鳳巖派로서 父 張漢杰과 母 海

1) 이에 대해서는 김창원, <18~19세기 향촌사족의 가문결속과 가사의 소통> 《19세기 사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313~333쪽 참조.

州吳氏의 3남으로 慶北 金陵郡 大德面 蓮花里에서 정조 3(1779)년에 출생하여 6세에 부친을 여의었으며 20세에 두 살 아래의 여인과 결혼하였다. 20대 초반에는 마을의 아동을 모아놓고 書堂을 경영하였으며, 24세에는 소금과 생선 장사를 하였고, 33세 때에는 약초와 南草 장사를 하다 실패하였다. 이후 농사에 전념하다 74세에 부인과 사별한 후 4년 뒤인 철종 7(1856)년에 78세의 나이로 이웃 德山里에서 삶을 마감하였다.<sup>2)</sup> 비록 상업에 실패하고 궁벽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仁岡張氏世譜》에 의하면 농재는 忠節과 文翰家의 후손임을 알 수 있다.<sup>3)</sup> 따라서, 농재는 이에 대한 자긍심을 지녔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문한가의 후예로서 타고난 文才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농재가 살았던 18세기 이래 향촌사회에서는 새로운 영농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산성의 제고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농민층 분화가 촉진되는 등 광범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적인 富를 획득해 나간 일부 중서하층민들은 신분상승을 꾀하게 되고, 그 결과 중세적 신분질서가 와해되어 가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회세력의 존재형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적 富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배태시키고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개인·계층간의 불화와 갈등·대립을 현실화하고 심화시켜 향촌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려 갔다. 또한, 田稅·軍役·還穀과 각종 雜稅 등에 대한 수취체제의 문란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영리와 사행심의 만연 및 도시 소비 유흥문화의 침투,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한 재해와 질병은 향촌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소농민들을 토지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등 이 시기 향촌사회는 커다란 변동의 와중에 놓여 있었다.<sup>4)</sup>

이와 함께 중앙권력집단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조정에서는 새롭게 성장하는 계층을 권력의 동반자로 삼게됨으로써 향촌사회의 사족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되기 일췌였다. 19세기에 들어 정치권력은 서울에 거주하는 몇몇 힘있는 가문으로 집중화되면서, 그간 향촌사회 내에서의 각종 부세 운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족들이 장악해 왔던 鄉權은 守令權에 귀속되었다. 게다가 향촌사회

2) 이상 농재의 삶의 궤적은 張信綱, <自歎辭> <祭文亡室> 《蕤齋雜詞》, 49~56면; 122~124면 참조.

3) 蕤齋 張信綱의 家系에 대해서는 權泰乙, 앞의 글, 74~75쪽 참조.

4) 朴京夏, <18세기 州縣鄉約의 性格>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990, 169~173쪽.

의 사족층에게 주어졌던 대부분의 면세 및 면역의 특권마저 축소되었다. 이러한 향촌사회 사족들의 실린 감축은 그들의 사회 경제적 기반의 침하는 물론 혼락지배까지도 어렵게 하였다.

이와 같이 흉년과 전염병 등의 빈발한 자연재해와 세도정치 및 수취제도의 문란,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노정되고, 이에 각종 민란과 변란이 끊없이 일어나던 혼란기의 여러 체험들은 장신강이 가사와 한시문을 저술하여 《蕘齋雜詞》를 엮게 된 동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은 그의 <蕘齋吟>에 잘 나타나 있다.

幽區深處幸得甦	그옥한 땅 깊은 곳에서 요행히 귀머거리도
非病非塞又非眞	병도 아니요 막힌 것도 아니요 또한 사실도 아니로다
千重大嶽遠城市	천 겹의 큰산에 막혀 시장과는 멀고
一帶清湖滌器塵	에워싼 맑은 호수는 속세의 더러움을 씻어 주는구나
性愚豈有仁智交	성품이 우매하니 어찌 仁智人과 사귀며
家貧曾無遠方親	집안이 가난하니 일찍이 먼 곳의 친한 이가 찾을 리 없도다
所求平生但溫飽	평생에 바라는 바는 단지 따뜻함과 배부른 것이요
日與農談數家隣	날마다 몇몇의 이웃과 농사이야기하며 지내네

대저 귀머거리 '甦' 한 자를 사람들은 모두 병이라 이른다. 그러나 나는 홀로 아름답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귀머거리인즉 다른 사람들이 비록 선악 시비가 있으나, 나에게서는 들리지가 않는 까닭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비록 장단과실이 있어도 들리지가 않는 까닭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악담과 패욕이 스스로 내 몸에 미치지 않으니 몸은 이로써 자연스레 편안하고, 마음은 이로써 스스로 바르게 되니 집에 있거나 밖에 나가서 마땅함에 합치되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남에게 욕을 당하여도 내 입 때문에 당하고, 남에게 낭패를 당함에도 내 혀 때문에 당하게 되니, '甦' 한 자를 고수하여 잃지 않았기에 남들이 모두 낭패를 당하고 욕을 보더라도 나는 젊어서부터 늙음에 이르기까지 욕을 본 일도 낭패를 당한 적도 없다. 이로써 본다면 '甦'자의 의미가 어찌 심오하고 또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하겠는가.5)

향촌사회의 몰락사족인 蕘齋 張信綱은 권농교서나 상소문, 실학의 연구서를

5) 張信綱, <蕘齋吟> 《蕘齋雜詞》, 70~71면. “夫甦之一字 人皆謂病也 而我獨謂美也 何者 甦則人雖有善惡是非 我無聞故 不嘗傳於人 人誰有長短過失 無聞故 不嘗傳於人 人之惡談悖辱 自不及身 身以此而自安心 以此而自正 所居所到 無不合宜 豈不美哉 逢人之辱 由我口而逢也 見人之敗 緣我舌而見也 甦之一字 固守勿失 則人皆見敗逢辱 而我則白少至老 無辱無敗 以此觀之 則甦字之意 亦豈無深且美耶.”

바탕으로 현실적 개선을 요구하였던 실학자나 일반 지식인들과 달리 생업의 일선에 참여한 農業者의 위치에서 붕괴의 위기에 처한 향촌사회를 ‘蠶’이라는 한 글자로 파수해 내고 있다. 농재의 이러한 생활태도는 文啓洛의 <愚舉齋和韻序>를 보면 보다 선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주인翁은 과연 蠶자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구나. 그러나, 타고난 자질이 증명하니 어찌 진짜 귀머거리이겠는가? 修身과 訓子の 道와 治産하고 作業하는 규범과 사람과 물건을 대하는 威儀와 화목하고 겸양하는 風貌와 淸儉하고 端雅한 節度가 마음에서 나온 것과 무관한 것이 없으니 밝히는 말도 여기에 있고 생각하는 말도 여기에 있다. 한 마음속에서 유독 이것에는 증명하고 저것에는 어두우니 그렇다면 그 蠶과 不蠶은 그의 마음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한 번 사직한 후에 수 칸의 茅齋를 벽산 아래 정제가에 짓고는 淫聲이 들림에 참지도 師曠의 귀박음이 없었고 곧은 거동을 이야기할 때에도 또한 仲子와 같은 소문이 없었다.<sup>6)</sup>

위 인용문은 文啓洛이 장신강의 평소 지향하는 생활태도를 묘사하고 있는 바, 농재는 항상 修身과 訓子の 道, 治産하고 作業하는 규범, 사람과 물건을 대하는 威儀, 화목하고 겸양하는 風貌, 淸儉하고 端雅한 節度로 생활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여, 淫聲이 들려도 師曠처럼 맑은 귀로 듣지 않았으며 거동함에 있어서도 여색을 탐하는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아 將仲子와 같은 소문이 없었음을 읽을 수 있다. 장신강이 이처럼 ‘蠶’을 自號로 삼아 자신을 지키려는 강한 집념을 보이는 것은 是非善惡과 長短過失로 다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자신을 다잡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자신의 가족과 향촌민들에게 윤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있었을 것이다. 이는 文洪範의 <湖亭和韻>에 좀더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是是非非盡曰蠶	시비가 다하는 걸 일러 蠶이라 하니
癩然鳴骨得淸眞	아원 몸애 앙상한 뼈로 淸眞함을 얻었네
心如溪水谷水潔	마음은 시냇물과 계곡의 얼음과 같이 맑고
德似高岑超俗塵	덕은 높은 봉우리와 같이 세속을 뛰어 넘었네
教子當爲仁與智	자식을 가르침은 마땅히 仁과 智로써 하고

6) 文啓洛, <愚舉齋和韻序> 《愚齋雜詞》, 81~82면. “主翁果不越乎蠶一字之外也 然而天賦可聽 豈其眞蠶耶 如修身訓子之道 治産作業之規 待人接物之義 敦睦推讓之風 淸儉端雅之節 無不關心隨處側耳 明言在茲 念言在茲 一片腔子 獨聽於此 專暗於彼 然則其蠶與不蠶 願其心之存不存如何耳 一自就第之后 數間茅齋 卜築於碧山下淸溪上 至听淫聲 頓無師曠之聽 及語廉儀 亦無仲子之間.”

接人應無踈且親 사람을 접대함에는 응당 靦疎의 구별이 없네  
 朱門小客平生恨 朱門의 小客이 평생 한스러워하는 것은  
 早不尊翁好作鄰 일찍이 존경스러운 翁과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한 것이라네

내가 우연히 이 마을에 이르렀을 때 비가 와서 유숙하게 되었다. 주인에게 古談冊을 보여달라고 청하였는데, 주인이 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 한 책자를 가지고 오게 하니 바로 聖齋雜詞였다. 한 편씩 살펴보니 민간의 환곡 폐해에 대한 일, 집안에서 널리 행해야 하는 일, 노소간에 분별해야 할 일, 농사와 학문을 권장하며, 주색을 경계해야 하는 일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 만약 마을이 트이고 통찰력 있는 翁이 아니고서야 어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만 마디라도 할 사람이 있으랴. 나 같이 어려서부터 배운 바 없는 사람으로 한 번 이 글을 완미하게 자신도 모르게 욕심에 막혔던 마음이 열리는 듯하니, 오늘날 이 翁이야말로 어찌 후생들의 본이 되어 후학들을 개발시켜줄 늙은이가 아니겠는가? 덕산의 산이 높고 높음이 이와 같고 이 翁의 순일함이 또한 이와 같으니 진실로 산중에서 安貧·守拙하는 도를 지닌 군자이니 감히 그 기쁨을 하례하지 않으리오?<sup>7)</sup>

위 인용문은 장신강의 생활태도와 관련하여 《농재잡사》의 저술동기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여기에서 보건대 농재는, 첫째 민간의 환곡 폐해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취제도의 모순과 가렴주구하는 관리들을 비판하고, 둘째 집안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서술하여 부자·부부·형제 및 종족간의 화목을 유지하여 공동체의식을 도모하고, 셋째 노소간에 분별해야 할 일들을 서술하여 향촌사회의 질서 유지와 연대의식을 고취하며, 넷째 농사와 학문을 권장하여 농민의 직분과 농본이념을 강화시키고 자녀들에게는 주경야독을 권장하여 부모들의 소망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다섯째 주색으로 인해 허랑방탕한 삶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였다.

이같이 농재는 가족·가문의 자제들이나, 향촌민들을 교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15편의 가사를 창작하고 이와 관련한 한시문을 직접 저술하여 엮은 다음 《聖齋雜詞》라는 제명을 붙였다는 사실을 간취해 낼 수 있다. 그리고 후일 士友들로부터 和韻詩나 序文 등을 받아 다시 편집하여 엮은 책이 이 글의 대상자료로서

7) 文洪範, <湖亭和韻> 《聖齋雜詞》, 83~84면. “余偶到此村 滯雨留宿 使主人請見古談 則使家僮持來一冊子 卽聖齋雜詞也 蠟覽一篇 民間還糶事也 家間行用事也 老少分別事也 勸農勸學也 淫色敬謹事也 無非可言之事也 若非心猿洞遜之翁 豈敢有一事半言之人哉 余以年少無學之輩 一次翫味自不知茅塞之開 今世斯翁 豈非法後生開來學之翁乎 德山之山 巍巍其如此 斯翁之粹粹 又如此 眞是山中安貧守拙有道之君子也 敢不賀喜.”

이용하는 텍스트 《龔齋雜詞》인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는 이상의 사실들에 대해서만 간명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하는 작품 즉, 가사와 한시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15편의 가사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언급이 가능할 것이다.

### 3. 《龔齋雜詞》의 體裁와 所載 作品

《龔齋雜詞》는 龔齋 張信綱이 여러 해 동안에 걸쳐 지은 가사 15편과 한시문 19편 및 士友들로부터 받은 和韻詩와 序文 11편 등을 직접 엮은 雜著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21cm, 가로 18cm의 韓紙로 엮은 筆寫本이다. 表紙에 책명이 없으나 文洪範의 <湖亭和韻>에 “내가 우연히 이 마을에 이르렀을 때 비가 와서 유숙하게 되었다. 주인에게 古談冊을 보여달라고 청하였는데, 주인이 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 한 책자를 가져오게 하니 바로 龔齋雜詞였다”<sup>8)</sup>라는 서술에서 이 책명을 《龔齋雜詞》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하겠다. 그리고 《농재잡사》는 앞뒤의 표지를 포함하여 총 69장 138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첫 장의 가사는 앞부분의 缺落으로 몇 장이 떨어져 나갔는지 알 수 없고 또 그 앞에 다른 작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또한, 85면부터 시작되어 89면 첫째 단에서 “八朔을 다시 빌어 三十二朔 定코디나/辛亥年 臘月 日作”으로 끝을 맺는 작품도 題名이 없어 이 부분에서도 최소한 한 장 이상 결락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가사 작품 15편은 그 題名에 잇따라 상하 2단 세로쓰기로 쓰여 있으며, 매 단은 두 구 한 짝의 여섯 목으로 되어 있어 매장 당 24구씩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 필체는 국한문 혼용의 楷書로 대체로 단정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필체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sup>9)</sup> 한시문

8) 文洪範, <湖亭和韻> 《龔齋雜詞》, 83면. “余偶到此村 滯雨留宿 使主人請見古談 即使家僮 持來一冊子 卽龔齋雜詞也.”

9) 權泰乙 교수는 張信綱의 6세손 張垓成님의 증언과 종이의 퇴색 정도로 보아 저자의 親筆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權泰乙, 앞의 글, 79쪽). 그러나, 농재 장신강의 다른 문헌이 발견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후손의 증언이나 종이의 퇴색 정도만으로 친필본이라고 추정하는 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후손의 증언과 기왕의 연구 성과를 존중하고자 한다.

의 경우에는 매장 당 12행으로 쓰여 있으며 매 행은 20자 내외의 글자가 적혀 있고, 士友들로부터 받은 漢詩文은 題名 아래에 작자가 附記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정확히 언제 필사되었는지 그 필사연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7言律詩 <和龔齋韻>이라는 詩題 아래에 “癸丑孟冬花林 金錫九”<sup>10)</sup>라고 저자와 그 지은 해를 附記하고 있어, 필사연대가 최소한 1853년 이후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이본이 발견되지 않은 현 재로서는 김천향토사편찬위원회 소장의 《농재잡사》가 유일본이라 하겠다.

《龔齋雜詞》에 수록된 작품 목록을 도표화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龔齋雜詞》 所載 作品 目錄

일련 번호	작 품 명	句數·形式	창작 연대	작 자	분 류	비 고
1	失題	162	1836	張信綱	歌辭	희미곡 丙申歲라
2	勸學歌	92	미상	"	"	
3	勸農歌	110	"	"	"	
4	財物與受歌	42	"	"	"	
5	修身訓	194	"	"	"	
6	龜城記	164	"	"	"	
7	樂憂記	148	"	"	"	
8	還魂詞	122	"	"	"	
9	作錢遊別曲	100	"	"	"	
10	自歎辭	180	"	"	"	
11	老人歎	148	"	"	"	
12	指路歌	148	"	"	"	
13	龔齋吟	7言律詩·序	"	"	漢詩文	
14	誠酒	4言古詩	"	"	"	
15	誠念	說	"	"	"	
16	仁義禮智	說	"	"	"	
17	名山湖記	記	"	"	"	
18	追懷	箴	"	"	"	
19	德山無知翁和韻序	序	"	李珍園	"	
20	愚學齋和韻序	序	"	文啓洛	"	
21	湖亭和韻	7言律詩·序	"	文洪範	"	
22	和龔齋韻	7言律詩	"	朴龍秀	"	德山留客
23	甌修道山歌吟	5言絕句	"	張信綱	"	
24	失題	98	1851	"	歌辭	辛亥年臘月日作
25	一色同樂詞	66	1852	"	"	壬子年壬子月初一日丁未午時 丙午日今

10) 金錫九, <和龔齋韻> 《龔齋雜詞》, 127면.



일련 번호	작 품 명	句數·形式	창작 연대	작 자	분류	비 고
26	解論	論	미상	張信綱	漢詩文	
27	天地人論解	論	"	"	"	
28	烏鵲爭隣詞	216	"	"	歌辭	
29	誠子孫書	誠書	"	"	漢詩文	
30	牛馬爭功論	論	"	"	"	
31	鷄犬爭功論	論	"	"	"	
32	祭文亡室	祭文	1852	"	"	室年至七十二而別我壽 吾年至 七十四而別室
33	台巖齋和韻	7言律詩·序	미상	金魯均	"	
34	和履極窩韻	7言律詩	"	張信綱	"	
35	挽辭	挽詞	미상	張信綱	漢詩文	
36	默愚翁和韻	7言律詩	"	河翁	"	陝川人
37	挽狀	挽詞	"	張信綱	"	
38	和龔齋韻	7言律詩	1853	金錫九	"	癸亥孟冬花林
39	德潤身	說	미상	張申綱	"	
40	富潤屋	說	"	"	"	
41	龔齋序	序	"	申錫談	"	
42	和龔齋韻	7言律詩	"	金基洪	"	花谷散人 茂未人
43	省心修身	說	"	張信綱	"	
44	諺次龔齋韻	7言絕句	1808	金瑬淳	"	歲戊辰正月
45	龔齋謹序	序	미상	미상	"	

\* 일련번호는 원문의 게재순임.

가사 15편을 보면 대부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 많은데, 이들 작품은 모두 농재 장신강이 직접 창작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중 과연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작품이 몇 편이나 있나 하는 것이 자못 궁금하다. 여기에는 <財物與受歌> <龜城記> <還廩詞> <作錢還別曲> <一邑同樂詞> <烏鵲爭隣詞> 등 그 題名을 처음 대하는 작품은 물론이고, <勸學歌> <勸農歌> <修身訓> <樂憂記> <自歎辭> <老人歎> <指路歌> 등 제명이 이미 알려졌거나 그와 유사한 명칭에 속하는 작품 중에도 내용이 전혀 다른, 同名異作이다. 물론 作品名이 새롭다고 해서 이미 학계에 소개된 작품과 반드시 다른 작품이란 보장은 없다. 동일작품에 부여된 異稱을 여러 개 가진 작품들이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대로 필자 나름의 조사결과, 이들 15편의 가사는 《藝齋雜詞》에만 수록된 작품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 중 몇 작품에는 작자 나름대로 그 창작연대를 밝혀놓고 있음도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하면서 《농재잡사》 소재 가사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4. 《聶齋雜詞》 所載 歌辭의 性格

##### 4.1 오륜의 실천과 화목의 강조

농재 장신강은 仁同張氏로 경북 金陵에 거주하였는데, 이는 인동장씨 鳳巖派 金陵派祖인 6대조 張鴻翰(1571~1594)이 인동에서 금릉으로 移居하면서부터 世居地가 되었던 것이다. 장신강의 가문은 이곳에서도 벼슬을 하고 문장이 뛰어난 조상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나 그의 5대조이며 증조이신 通訓大夫 張重成(1659~1704) 이후 가문이 영락하기 시작하였다.<sup>11)</sup> 그러나, 장신강의 생애와 그 집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그 사실을 추적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부족한대로 <自歎辭>에 보이는 그의 생애에 대한 회고 부분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농재는 과거로 '넙신낭명'하여 기울어져 가는 가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八字에 科星업고 四柱 官星업서/工夫 六年 체유되야” 아버지를 여의자 “家勞도 영체하다/因以廢工 되거곤나 命度가 괴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20대에는 山村의 아들을 모아 舌耕을 하였으나, “胸中에 병이 되”어 그만두고 作錢 길에 올라 “介上포 너려가서 海塩 一포 바다 지고…村巷에 산미”를 하기도 하고 “질경 훈 덩 키야 지고/馬上浦 너려가서 海魚 훈 짐 박과다가/南市에 적미” 하기도 하였다. 30대에는 “草藥一부 키야 지고 州州약방”을 찾아가기도 하였는데, “뭇조흔 남방초을 갑다로 사셔지고” 경성으로 올라갈 때 西亂(홍경래난)으로 길이 막혀 “漢江을 못 건네고 걸리절리 산미”를 하였다. 그 이후로도 ‘木屨(나막신) 파기’와 ‘藁屨젓기’를 하는 등 현실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였으나, 결국 다 실패하자 마침내 “日出즉 日入식니 寒士의 소업”으로 깨달아 상업활동을 그만두고 “天下대본 업을 습아 一心으로 심을” 써서 “不飢불훈 훈는 거시 太平년

11) 權泰乙, 앞의 글, 75쪽 참조.

가 할노라”라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장신강의 생애를 대강이나마 알 수 있다.

<자탄사>는 작자가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농업 곧 ‘농사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의 의미를 계몽적으로 전달하고자 함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와해되어 가는 향촌사회의 농사일을 기존의 전통적인 세계인식에 바탕을 두고 다시금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창작의 의도가 잠복되어 있다는 점이다. 농업에 대한 이러한 위기의식은 작품 속에서 여러 가지의 장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거신들 홀거신나 다시 홀 것 아니로다”라는 구절에서 드러나듯 농업 이외의 다른 생업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부줄어이 밭을 밟고 부줄어이 논을 밟”면 ‘不飢不寒’한다는 것을 근거로 상대적으로 농업이 지닌 삶의 안정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sup>12)</sup>

더욱이, 인간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도 농사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一心갈 농”하기를 당부하는 <勸農歌>에서는 ‘力農치부’하면 생활의 艱難에서 벗어나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懶農하여 폐기한 농부의 삶과 대비한 후, “人間에 심셀거시 農事박기 또 닛는냐”라고 설교하고 있다. 심지어 “緋色아내 미워말고 力農치부 호야시면/花月갓치 고은 민여 不請自來 첩이”되니 “심씨호소 심씨호소 天下大本 심씨호소”라고 설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빈번한 자연재해가 서로 맞물리면서 당대의 농민들은 향촌 사회로부터 이탈하게 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修身訓>에서는 혈연적으로 보다 밀접한 내부의 질서와 연대의식이 해체되어 가고 향촌민들의 공동체의식이 와해되어 가는 현실에 대한 오류의 실천과 화목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모·부부·형제·族戚과 오류의 실천과 이웃간의 相和뿐만 아니라, “民子の 道리로서 萬萬 부당”한 官長시비에 관

12) 이러한 의미의 서술은 丁學遊(1786~1855)의 <農家月令歌>에서도 나타난다. “네로부터 나른 딸이 농업이 근본이라/비 부러 선업하고 말 부러 장스호기/전당 잡고 밭 쥐기와 장판의 체계노키/술장스 떡장스며 술막질 가가보기/아직은 혼전호나 홀 번을 뒤뉘호면/피락호 빗구력이 스든 곳 티이 업다/농스는 거는 거시 네 몸의 달녀는니/결괴도 진퇴 있고 년스도 풍흉 잇셔/술호풍박 좀시 지양 업다야 흐라마는/극진이 힘을 드러 가솔이 일심호면/아모리 술년의도 아스를 면호는니/제 식굴 제 덕되여 소동홀 뜻 두지 마소”(林基中 編, 《歷代歌辭文學全集》 8, 東西文化院, 1987, 594~595쪽).

한 문제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財物興受歌>에서는 치산에 있어서는 재물여수를 받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웃과의 화락하게 지낼 것을 강조한 <鳥鵲爭隣詞>는 한문장인 <牛馬爭功論>과 <鷄犬爭功論>와 함께 시기·질투와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던 당시 사회상을 우의적으로 표현 비판하고 있어 주목되는 작품으로 좀더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이들 작품은 작자인 張信綱이 몸소 체험한 경험적 현실을 제시하여 농민들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만류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즉, 작자는 향촌사회에서의 修身齊家를 통해 가족과 가문, 그리고 향촌민들을 결속시켜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작품은 작자인 장신강 자신이 비록 몰락사족이지만 사족으로서의 위신을 보전하려는 의식까지 내포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2 현실비판과 향촌사회의 안정 희구

18세기 이후 향촌사회에서의 가족·가문의 혈연적 유대관계와 향촌민들의 공동체의식이 붕괴되거나 약화되는 현상은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견하는 상품화폐경제와 수취제도의 모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樂憂記> <還窶詞> <作錢還別曲> 등에서도 서술된 바, 수취제도의 모순은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향촌사회로부터 농민들을 이탈하게 하거나 拒納과 같은 저항을 야기시켜 향촌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계기가 되었다.

面間에 面任倉差 洞內에 尊位檢督  
 晝夜로 동독하고 朝夕으로 검칙하니  
 밤이든들 쉬여보며 탈리난들 로라썰가  
 鳥不下於 公庭이요 狗長吠於 夜門이라

∴

豊年는 간디업고 凶年니 특심하다  
 飢寒을 불승하야 瘦妻와 약조들을  
 압세우고 뒤세우고 踰山월수 가는정상  
 이안니 可憐함이 還上만는 타시로다  
 年年니 봉고후에 負디류리 ㅎ는릭성  
 無年無而 無月無요 無面無而 無洞無라

石多홀샤 저齋곡은 耗作으로 제감하나  
 허마다 모이질어 充렬노적 여산이요  
 數小하다 이근딩은 一戶一隣 증가업시  
 허마다 戶가풀어 毀傷家隣 비석이라  
 슬프다 我邑民生 遼漠에 골몰하야  
 飢寒을 不免하고 廉恥을 不고하니  
 樂歲中 憂民되기 至寃코 더욱분타

위 인용문은 <還瘞詞>의 한 부분으로, 추수 후 환곡을 수납함에 있어 隣  
 徼·族徼 등의 갖은 방법으로 독촉하나 관청의 뜰에서는 메질이 끊이지 않아  
 나는 새조차도 내리지 않으며, 밤이면 밤마다 面任 倉差 尊位 檢怍 등 상환 독  
 려관들이 들이닥쳐 개 짖는 소리가 끊일 날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겨울이  
 오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가장은 수척한 아내와 병약한 자식을 데리고 허기  
 와 추위를 면해보고자 정든 고향을 떠나 산 넘고 물 건너 유리결식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부모나 처자식이 함께 유랑을 하다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  
 를,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떠나자 이에 아낙네 홀로 유리결식하는 장면을 포착  
 한 첫 번째 失題歌辭에서는 부모자식간 혹은 부부간의 정이며, 인륜을 따질 것  
 없이 오로지 생존 자체만이 문제가 되는 극단적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  
 다. 특히, 부부가 함께 유리결식을 하다가 아내가 얻어 온 밥이 적다고 아내를  
 구타한 후 어린 자식과 아내를 버리고 떠난 남편에게서,<sup>13)</sup> 생존만이 문제가 되  
 는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父子며 夫婦의 인륜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체험적 상  
 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부자나 부부의 생이별이라는 구성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모순된 제도와 구조에 대한 작자 장  
 신강의 대사회적 비판의식을 가늠하게 한다.

그러한 가운데 작가는 향촌사회의 안정을 기하는 의식을 틈틈이 보여주고 있다.

13) 廚門外에 少女乞人 幼兒을 등에 업고/표박업시 밥을 빌○ 獨以 覓食호거들○/  
 獨寡女야 물너본니 그 乞女 대들호되/自歲前 八月初로 夫婦 합피 박을 차○/冬  
 三朔 엄호질에 街巷에 즘을 차며/찌마다 죽을 빌어 至于今 섬기던니/今正月 大  
 망월에 어든 밥이 적다 호고/不良한 저 男人니 兩手로 썬을 치고/멀리까닥 피  
 의며서 너 밋고 단나다가/飢死 경영 될다 호고 義을 쓴코 가옴기로/孤弱호女  
 子 몸이 卽仍수후 못호고셔/金石갓치 모던 목숨 寡女乞人 되어이다

使民安堵 호자호니 마음 편흔 달리업다  
 石多還穀 세여보고 穀小民勢 슬피안니  
 年事雖云 小康이나 依穀進捧 홀죽시면  
 責微蚊而 負山이요 鞭弱馬之 重馱로다  
 百千思於 短晝호고 千萬度於 長宵호니  
 權政에 便宜經은 添補米外 無策이라  
 經雖似乎 法外호나 語民勢則 良策이다  
 從民勢而 特許호니 貧與富而 同樂이라  
 於穀에 爲添이요 於錢에 有補로다  
 一二石 不足米는 代添米而 子納호고  
 八九錢 不足作은 賣補米而 充穀호니  
 殘民의 毅力救弊 誠不小而 亦多로다  
 應爲家鼎 放賣人니 不斥賣而 能當호고  
 必以負戴 流離호니 無負戴이 安接호니  
 憂面에 樂生이요 飢腸에 飽滿이라

∴

如傷若保 憂恤濡은 비호고지 전이업다  
 着薄衣而 不寒이요 飲菜粥而 無飢로다  
 明府의 德澤으로 遷爰乙 덜어쨌니  
 百里內 ○太古는 울리 邑民 쏘이로다  
 風寒雪寒 이 嚴冬에 집을 징겨 안자쨌니  
 朝之飯 夕之粥을 먹으나 못 먹피나  
 니 泥甌에 돌을 먹고 니房席에 즘을 준다  
 此德이 是誰德고 울리 明府 德이로다  
 이보소 我邑民아 願借一年 가자셔라

위 인용문은 徐容淳이 경상도 知禮縣監 재임시(1850-1853) 향촌민들에게 환곡과 환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어 “應爲家鼎 放賣人니 不斥賣而 能當호고/必以負戴 流離호니 無負戴이 安接호니/憂面에 樂生이요 飢腸에 飽滿”할 수 있도록 善政한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는 <一邑同樂詞>의 한 부분이다. 비록 장신강이 어떤 실천적인 사항이나 시정의 글을 올리지는 않지만, 이 작품을 통하여 善治者가 신역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통치 상황에서는 邑民이 얼마든지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鄭齋 張信綱은 19세기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직접 체험한 사실들을 가사 및 한시문으로 저술한 후 이를 《鄭齋雜詞》라는 재명의 雜畵로 엮어, 와해되어 가는 향촌사회의 가족·가문의 구성원들간 또는 향촌민들

에게 오류의 실천과 화목을 강조하거나,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향촌사회의 안정을 회구하는 등 당대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 5. 마무리

이상에서 蠶齋 張信綱이 저술한 《蠶齋雜詞》의 저술동기와 체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기에 수록된 歌辭 15편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재 장신강은 향촌사회의 몰락사조으로서 생업의 일선에 직접 참여한 業農者로서 ‘蠶’을 自號로 삼아 是非善惡과 長短過失로 다루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자신을 다잡는 강한 집념의 소유자이다.

둘째, 이러한 농재의 의식은 결국 인간의 還穀 폐해에 대한 일, 집안의 행사에 대한 일, 老少간의 분별과 勸農·勸學 및 酒色の 경계 등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 歌辭 15편과 漢詩文 19편 및 士友들로부터 받은 和韻詩와 序文 11편 등을 엮어 《농재잡사》라는 텍스트를 저술하게 되었다. 이는 《농재잡사》가 장신강 자신의 가족·가문 구성원들간의 화합을 추창하는 한편 향촌민들을 교화시켜 와해되어 가는 향촌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농재잡사》 소재 15편의 歌辭는 그 題名을 처음 대하는 작품과 이미 알려져 있거나 그와 유사한 명칭에 속하는 작품도 있지만, 그 명칭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내용이 전혀 다른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농재잡사》 소재 15편의 가사는 대체로 거둬드는 흉년 등의 자연재해와 수취제도의 모순으로 인한 가족 이산의 참상과 유민의 발생 등을 고발한 현실 비판적 성격을 띤 <樂憂記> <還瘼詞> <作錢還別曲>과 失題歌辭 2편, 학문과 농업에 勸勉할 것을 강조한 <勸學歌>와 <勸農歌>, 治産에 있어 여수관계를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한 <財物與受歌>, 까마귀와 까치의 다툼의 우화적 표현으로 이웃과의 和樂을 권유한 <烏鵲爭隣詞>, 利祿과 仁義의 길을 분별하라는 <指路歌> 등 5편의 敎訓歌辭, 지난 일을 슬회한 <自歎辭>와 늙

음과 인생무상을 한탄한 <老人歎> 등 2편의 述懷歌辭, 환곡과 환전의 고통을 감해준 知禮縣監을 찬양한 노래 <一邑同樂詞> 등 2편의 頌德歌辭, 紀行歌辭로서 金泉 龜城 지역의 경관을 노래한 <龜城記> 등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밖에 한문장인 <牛馬爭功論>과 <鷄犬爭功論>은 <鳥鵲爭隣詞>와 함께 시기·질투와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던 당시 사회상을 우의적으로 표현 비판하고 있어 주목되는 작품으로 좀더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우선 《靈齋雜詞》에 수록된 가사 15편에 대한 개별 작품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이 작품들과 다른 가사와의 비교를 통하여 내용, 표현방식 등을 분석하여 이 가사집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19세기 향촌사회의 혼란과 위기에 대한 사족들의 또 다른 대응방식으로서 가사문학이 소통·향유되고 있었음을 밝히고, 가사문학의 지형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포괄적인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를 하였기에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후속논문에 미루어 둔다.



Abstract

The Study of Gasa(歌辭) Written in  
《Nongjeajabsa(聾齋雜詞)》

Yi Dong-Chan

This paper is the study of writing motive and the format of the book, 《Nongjeajabsa》 written by Nongje Jang sin-gang(聾齋 張信綱, 1779~1856). And then in this paper, I look over the character of fifteen piece of Gasas written in the book, in relation to the creation and spread of Gasa literature at local area in nineteen century. My essential point was presented in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Nongjea Jang sin-gang who was reined peer was engaging in farming at the countryside. He made his nickname. It was Nong,—the meaning is ‘deaf’(聾)—so he tended not to attend to disordered world but to attend to his moral identity.

Second, his moral identity encouraged him to write 《Nongjeajabsa》 that was filled in the fifteen Gasa. The book sang the song about the vice of tax-system for the people, ritual in family, observing the proprieties, encouragement of agriculture, encouragement of education, and the warning about overdrinking and having sex. The book was created in order that he enlightens his family, relation and the people living in his town, so he intended to keep order and encouraged cooperative spirit in his town.

Third, although fifteen Gasa written in 《Nongjeajabsa》 was filled in unknown work, known work, and similar work in contrast with other Gasas, the means of the bulk of Gasa in the book was so different.

Finally, the fifteen Gasa can be mostly assorted as following works :

Firstly, the work of disillusionment was described of the circulated disaster, and the miserable condition of broken families and the origination of wandering people by the vice tax-system. Secondly, the work of encouragement was described of education, agriculture, being in harmony with neighborhood and clear business relation. Finally, the work of looking back on the past, the work of commendation living in his town, and the work of praising the site of superb scenic beauty in his town.